

##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 우울증상 및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김은진

이정윤<sup>†</sup>

성신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24명이었으며,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IPPA-R), 우울증상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갈등해결전략 척도(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 CRM;FPC), 또래관계 척도(Index of Peer Relations: IPR)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 애착의 하위 유형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우울증상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은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 중 소외감하고만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은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증상, 갈등해결전략, 매개효과

---

이 논문은 이정윤의 지도로 이뤄진 김은진(2009)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및 수정한 것임.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게재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6-742)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49-1,

Tel: 02-920-7603, E-mail : jungyoon@sungshin.ac.kr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의미와 이 유를 형성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러한 대인관계는 다시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으로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후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한상철, 1998). 즉,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면 인간으로서의 긍정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관계 맺기 및 유지, 친밀감과 사교성, 지지행동 등은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것은 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지지하며, 대인관계를 이해하는데 애착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애착은 개인의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걸쳐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초기 애착 이론에서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 속에서의 애착만이 연구되었으나, 현재에는 Bowlby의 내적작동 모델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애착은 전 생애 기간 동안의 대인관계의 기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유아기동안 형성된 애착 관계가 청소년기 이후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해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최초의 인간 관계 즉,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과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다(이창숙, 2007). 애착을 안정적으로 경험한 아동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갖게 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했던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의 가치 또한 확실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 사회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게 되며, 지속적으로 대인관계 속

상호 작용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김선주, 권선휘, 2004; Putallaz & Heflin, 1990)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애착은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안정형(secure), 몰두형(preoccupied), 거부-회피형(dismissing), 공포-회피형(fearful) 등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 분류(Bartholomew & Horowitz, 1991)되기도 한다. 안정형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몰두형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의존 욕구가 강하고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 여긴다(김은정, 권정혜, 1998). 거부-회피형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어, 타인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독립심을 유지한다. 공포-회피형은 거부형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이에 더불어 자신 또한 가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애착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안정애착 집단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기와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불안정 애착집단은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자기와 부모 표상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애착 집단은 소극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이시은, 이재창, 2004). 그리고 애착의 안정성이 높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낮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 특성을 보였으며, 안정성이 낮고 거부성과 두려움성이 높아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대인관계 특성을 가진다(안희애, 2006). 이와 같이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이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해 연구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애착 및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변인으로서 우울증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애착과 우울증상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가지게 되는 반면(Schaffer, 1999 ; Holmes, 1992),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을 가지게 되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owlby, 1989).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았고(오송희, 1998),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우울성향은 높았다(Bifulco, Moran & Jacobs, 2001).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구에 대한 애착은 고등학생의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경남, 2003).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볼 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게 하며, 이에 영향을 받아 결국 우울증상이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상은 대인관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윤현수, 오경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집단은 비우울 집단보다 대인관계문제 총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비우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울증상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는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결과(Burns, Sayers & Moras, 1994)가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한 즐겁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가지게 되며, 이는 심리적 부적응 및 우울증을 가져오고(Bowlby, 1989), 우울증은 다시 대인관계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 세 가지 변인들의 관계를 함께 검토한 것이 드물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증상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애착 및 또래관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갈등해결전략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등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청소년의 시기에도 이러한 갈등은 빈번히 찾아온다. 애착을 기반으로 한 내적작동모델은 대인간의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방법의 기초를 이룬다(Corcoran & Mallinckrodt, 2000). 안정적으로 애착된 아동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갈등해결기술을 배우게 됨에 따라 질 높은 우정을 형성한다(Liberman, Doyel & Markiewicz, 1999). 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갈등해결에 있어서 조정과 타협을 잘하고 보다 지지적으로 해결하지만(Freeney, Noller, 1990),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파괴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갈등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경애, 1984). 또한 안정 애착을 보일수록 갈등 상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불안·양가형 애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인해 관계 내에서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김경희, 2008).

한편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관계의 질에서 갈등의 양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관계의 만족도와 더욱 관련성이 깊다(Collins & Laursen, 1992). 따라서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희영, 천태복, 2005; Asher, Parker, & Walker 1996). 결국 어떠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느

나에 따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통해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과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갈등해결전략을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갈등해결전략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애착이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결과는 부모애착이 우울의 시작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Gotlib, Hammen, 1992 ; 김은정, 권정혜, 1998). 또한 많은 연구들은 우울 및 갈등해결전략과의 또래관계의 유의미한 관계를 입증하였으며 부적응적인 또래관계는 종종 심각한 우울의 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애착이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이라는 기제를 통해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보다 과정적이고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상을 낮추게끔 하고,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활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적 개입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5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의 자율학습,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의 감독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77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에서 누락된 문

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153부를 제외한 324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총 324명 중 성별로는 남학생 211명(65.1%), 여학생 113명(34.9%)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160명(37.7%), 2학년 86명(25.9%), 3학년 124명(36.4%)이었다.

### 측정도구

#### 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번안하여 연구한 옥정(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IPPA와 같이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키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또래 애착척도는 제외하였다. IPPA-R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총 25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 이며, 각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는 순서대로 .88, .84, .74로 나타났다.

#### 우울증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이 우울증상 정도를 측정하려는 미국국립 정신보건연구원(NIMH)에 제작한 도구로서 김정숙(2003)의 척도를 수정한 이지원(2006)의 우울증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성인용이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졌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또한 이미 입증된 바 있다(이보경, 2004). 기존의 우울증상 척도는 임상적 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척도는 현재 피검자의 주관적인 우울감을 자기

보고의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80점까지로 하였고 정도 이상의 우울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21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8 이었다.

###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Alexander(2000)가 제작한 CRM:FPC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척도를 최창욱 등 (200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협력형, 공격형, 회피형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협력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 하며, 갈등해결을 위해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형'에는 친구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피형'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화를 삭이거나 갈등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총 30문항으로 협력형 12문항, 공격형 13문항, 회피형 5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65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순서대로 .82, .77, .59로 나타났다.

###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IPR(Index of Peer Relations)척도를 김의섭(2001)이 직접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IPR은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 관계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가능한 총 점수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 이었다.

###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부모애착, 우울증상, 갈등해결전략과 또래관계는 상관분석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세 단계의 절차에 따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부모애착 하위 유형가운데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각각  $r=-.145, -.119$ ), 또래관계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각각  $r=.170, .191$ )을 보였으며, 갈등해결전략 가운데 협력형 갈등해결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314, .400$ ), 공격형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각각  $r=-.141, -.168$ )을 보였다. 한편 부모애착 하위유형 가운데 소외감은 우울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 $r=.410$ )을, 또래관계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r=-.325$ )을 보였으며,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 $r=-.229$ ), 공격형 및 회피형 갈등해결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각각  $r=.304, .167$ )을 보였다.

###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와의 애착 및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관련이 깊은 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이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Baron &

표 1. 부모애착, 또래관계, 우울증상, 갈등해결전략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1. 신뢰감	1							
2. 의사소통	.794**	1						
3. 소외감	-.636**	-.583**	1					
4. 우울	-.145**	-.119*	.410**	1				
5. 협력형	.314**	.400**	-.229**	.010	1			
6. 공격형	-.141*	-.168**	.304**	.305**	-.254**	1		
7. 회피형	-.035	-.058	.167**	.178**	-.032	.096	1	
8. 또래관계	.170**	.191**	-.325**	-.285**	.232**	-.296**	-.301**	1

\* $p < .05$ , \*\* $p < .01$

Kenny(1986)가 제안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부모애착의 신뢰감( $r = -.035$ ,  $p = n.s$ )과 의사소통( $r = -.058$ ,  $p = n.s$ )은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는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증상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 및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애착의 하위 유형인 소외감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있어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증상,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우울증상과 또래관계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증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 중, 신뢰감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 = -.145$ ,  $p < .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신뢰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70$ ,  $p < .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우울증상이 또래관계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 = -.226$ ,  $p < .001$ ), 신뢰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 = .132$ ,  $p < .05$ ). 그러므로 우울증상은 신뢰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은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 = -.119$ ,  $p < .05$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191$ ,  $p < .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우울증상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 = -.266$ ,  $p < .001$ ),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 = .159$ ,  $p < .01$ ). 그러므로 우울증상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 또한 우울증상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 = .410$ ,  $p < .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소외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325$ ,  $p < .0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우울증상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 = -.180$ ,  $p < .01$ ), 소외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 = -.251$ ,  $p < .001$ ). 그러므로 우울증상은 소외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2.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단계	변인	$\beta$	R <sup>2</sup>	F
신뢰감	1단계	신뢰감→우울증상	-.145**	.021	6.959**
	2단계	신뢰감→또래관계	.170**	.029	9.636**
	3단계	신뢰감→또래관계 우울증상→또래관계	.132* -.226***	.098	17.503***
의사소통	1단계	의사소통→우울증상	-.119*	.014	4.620*
	2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191**	.036	12.184**
	3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우울증상→또래관계	.159** -.266***	.106	19.100***
소외감	1단계	소외감→우울증상	.410***	.168	64.683***
	2단계	소외감→또래관계	-.325***	.105	37.841***
	3단계	소외감→또래관계 우울증상→또래관계	-.251*** -.180**	.132	24.436***

\* $p<.05$ , \*\* $p<.01$ , \*\*\* $p<.001$

표 3.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과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단계	변인	$\beta$	R <sup>2</sup>	F
신뢰감	1단계	신뢰감→협력형	.314***	.098	35.174***
	2단계	신뢰감→또래관계	.170**	.029	9.636**
	3단계	신뢰감→또래관계 협력형→또래관계	.108* .198***	.065	11.074***
의사소통	1단계	의사소통→협력형	.400***	.160	61.437***
	2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191**	.036	12.184**
	3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협력형→또래관계	.117** .186**	.065	11.233***
소외감	1단계	소외감→협력형	-.229***	.052	17.689***
	2단계	소외감→또래관계	-.325***	.105	37.841***
	3단계	소외감→또래관계 협력형→또래관계	-.287*** .166**	.132	24.256***

\* $p<.05$ , \*\* $p<.01$ , \*\*\* $p<.001$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 중, 신뢰감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314,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신뢰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170, p<.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협력

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198, p<.001$ ), 신뢰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108, p<.05$ ). 그러므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은 신뢰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400,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191, p<.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186, p<.01$ ),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117, p<.01$ ). 그러므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 또한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229,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소외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325, p<.0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166, p<.01$ ), 소외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

하였다( $\beta=-.287, p<.001$ ). 그러므로 협력형 갈등해결 전략은 소외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 중, 신뢰감은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141, p<.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신뢰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170, p<.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227, p<.001$ ), 신뢰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131, p<.01$ ). 그러므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은 신뢰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은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168, p<.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4.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과 또래관계에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단계	변인	$\beta$	R <sup>2</sup>	F
신뢰감	1단계	신뢰감→공격형	-.141**	.020	6.563**
	2단계	신뢰감→또래관계	.170**	.029	9.636**
	3단계	신뢰감→또래관계 공격형→또래관계	.131** -.277***	.104	18.727***
의사소통	1단계	의사소통→공격형	-.168**	.028	9.399**
	2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191**	.036	12.184**
	3단계	의사소통→또래관계 공격형→또래관계	.145* -.272***	.103	19.452***
소외감	1단계	소외감→공격형	.304***	.093	32.722***
	2단계	소외감→또래관계	-.325***	.105	37.841***
	3단계	소외감→또래관계 공격형→또래관계	-.259*** -.215***	.147	27.646***

\*  $p<.05$ , \*\*  $p<.01$ , \*\*\*  $p<.001$



표 5. 부모애착 하위 유형 소외감과 또래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독립변인	단계	변인	$\beta$	R <sup>2</sup>	F
소외감	1단계	소외감→회피형	.167***	.028	9.233***
	2단계	소외감→또래관계	-.325***	.105	37.841***
	3단계	소외감→또래관계 회피형→또래관계	-.281*** -.259***	.171	32.910***

\*\*\*p<.001

영향을 미쳤다( $\beta=.191, p<.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272, p<.001$ ),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145, p<.05$ ). 그러므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 또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304,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소외감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325, p<.0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215, p<.001$ ), 소외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259, p<.001$ ). 그러므로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은 소외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 중 소외감만이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소외감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소외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의 각 하위

유형 중, 소외감은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beta=.167, p<.001$ ),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소외감이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325, p<.001$ ). 마지막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beta=-.259, p<.001$ ), 소외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였다( $\beta=-.281, p<.001$ ). 그러므로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은 소외감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 가운데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또래관계 및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친구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즐거움과 신뢰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주영, 도현심 2001 ; 이시은, 이재창, 2004; 김선주, 권선혜, 2004). 따라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청소년이 맺는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인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갈등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황주혜, 2006) 또한 신뢰감과 의사소통은 우울증상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인 소외감은 우울증상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뿐만 아니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애착이 낮은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고(Bowlby, 1989), 갈등해결에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Levy Davis, 199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와 안정애착을 이룰수록 덜 우울하고,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이 낮으면 우울하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며, 또래관계가 안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우울증상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우울증상은 이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우울증상을 초래하고, 증가된 우울증상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우울증상의 생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울 장애에 대한 취약성 요인을 형성하게 된다(Armsden, Mccanley, Greenberg, Burke & Mitchell, 199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우울 성향이 낮아진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오송희, 1999; 이경남, 2002, Bowlby, 1980)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불안정 애착관계로 인해 우울증상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된다(김윤정, 1999)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또래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우울증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

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협력형 갈등해결전략과 공격형 갈등해결전략 모두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은 부모애착의 하위 유형인 소외감과 또래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또래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갈등해결전략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협력형 갈등해결전략을 낮추고 공격형 갈등해결전략과 회피형 갈등해결전략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습득하지 못한 것이 결국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장휘숙, 2000)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현, 2002)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차 타당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간의 애착관계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료가 주관적이고 신뢰롭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 관찰과 같은 다각적인 측정 방법 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 신

되도를 높일 수 있는 측정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과 또래관계에 있어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부모애착과 우울증상, 그리고 부모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각각 다루던 것을 종합하여, 부모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우울증상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적 기제를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아동기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부모애착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서 청소년의 삶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정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당면한 문제해결과 발달 촉진을 돕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까지도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결국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들의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가깝게는 이들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 개입하거나 협력적으로 갈등 해결하는 방식을 습득하도록 개입하는 식의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경애 (1984). 부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희 (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선주, 권선휘 (2004). 6세 이전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3), 637-655.
- 김윤정 (1999). 우울성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1), 139-153.
- 김의섭 (2001).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또래관계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안희애 (2006). 애착과 정서표현갈등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오송희 (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현수, 오경자 (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77-594.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 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41-5 6.
- 이경남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2(1), 1-13.
- 이보경 (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 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이시은, 이재창 (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7-226.
- 이지원 (2006).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비행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 대학교.
- 이창숙 (2007).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이희영, 천태복 (2005). 학년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또래 갈등해결전략. 수산해양교육연구, 17(2), 228-239.
- 장휘숙 (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최창욱, 권일남, 문선량 (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홍주영, 도현심(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황주혜 (2006). 청소년의 애착관계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Armsden, G. C., Mccan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Clinical Psychology*, 18, 683-697.
- Asher, S. R., Parker, J. G.& Walker, D. L. (1996).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366~40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rtholomew, Kim.,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ifulco, A., Moran, P. M., Mahon, J. & Jacobs, C. (2001). *The attachment style interview*. London: Royal Holloway & Bedford New college.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basic Books.
- Bowlby, J. (1989). *Secure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
- Burns, D. D., Sayers, S. L., Moras, K.(1994). Intimate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there a casu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1033-1043.
- Collins, W. A. & Laursen, B. L. (1992) Conflict an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coran, K. O.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73-483.
- Feeney, A. J.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Gotlib, I. H., & Hanmmen, C. L.(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s a cognitive-Interper sonal integration*, Chichester: Wily
- Holmes, J. (1992).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vy, M. & Davis, K. (199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 - 471.
- Liberman M., Doyle, A. B.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 202-213.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 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California, Brooks Cole.
- 원 고 접 수 일 : 2009.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0. 20.  
게 재 결 정 일 : 2009. 11. 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Eun-Jin Kim, Jungyoon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324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The Conflict Resolution Measure: Friends, Parents, Co-workers(CRM:FPC), Index of Peer Relations(IPR) were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and trust subtypes of parent attachment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 and the cooperate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cores, while they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the aggressive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cores. Second, the avoidant type of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scor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lienation subtype of parent attachment scores. Third, depression and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their peer relationship.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Depression,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Mediating effect.